

스포츠

8

2019년 10월 11·12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 6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가 1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고 대장정의 출발을 알렸다. 우리은행 위성우, 삼성생명 임근배, 신한은행 정상일, BNK 썸 유영주, KEB하나은행 이훈재,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아랫줄 왼쪽부터)과 6개 구단 대표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가운데 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대권파·봄 농구파 ‘감독들의 동상이몽’

아시아★→KCC서 음주 차사고→3년 재할→DB행

미친 재능 꿈틀대는 김민구 “이젠 행복한 농구 하고 싶다”



김민구

20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농구 팬들은 새로운 스타 탄생에 환호했다. 주인공은 당시 경희대 재학 중이던 김민구(28·원주 DB). 한국은 필리핀과의 4강전에서 79-86으로 패했지만, 27점을 쏟아 부은 그의 활약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회 베스트5에 선정된 김민구는 ‘제2의 허재’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슛, 드리블, 패스에 스피드까지 겸비한 테크니션이었다. 천부적인 농구센스는 그야말로 ‘미친 재능’이었다.

2013 KBL 드래프트 2순위로 전주 KCC 유니폼을 입은 김민구는 기대와 달리 프로농구 무대에서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2014년 여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자체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동시에 이 사고로 골반 뼈가 부러져 몇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다. 3년간의 재활 끝에 코트에 섰지만, 10~15분 내외를 뛰는 벤치워머가 그의 자리였다.

김민구는 지난 여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왔지만 반응이 싸늘했다. 원 소속구단 KCC와 재협상 끝에 최소 연봉인 3500만 원(계약기간1년)에 도장을 찍은 뒤 사인&트레이드를 통해 DB로 이적했다.

DB로 이적을 원한 이유는 단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김민구는 “내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KCC에서는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도 곧 서른이 된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들기 전에 뭘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DB 이상범 감독(50)은 연습경기 때부터 김민구를 팀의 핵심 자원 중 한명으로 중용하고 있다. 그는 9일 안양 KG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승부처인 4쿼터 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86-81)에 공헌했다.

김민구는 “과거의 일(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다.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재활하는 동안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라며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그래도 나를 믿어준 가족, 친구, 팬들을 생각하며 재활을 해왔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최소연봉으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 내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는 것이다. 친구인 (김)종규와 한 팀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뛰고 있다. 재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컸다. 아마 지금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행복해하고 기쁠 것 같다. 아직 부족하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가 1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6개 구단 감독과 구단별 대표 선수 1명 등 총 12명이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새 시즌 목표와 각오를 밝혔다.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청주 KB스타즈가 ‘수성’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5개 팀 감독들은 우승과 플레이오프(PO) 진출을 의미하는 ‘봄 농구’를 향한 의지를 보였다. 여자프로농구는 19일 부천 KEB하나은행과 부산 BNK 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오래됐다”고 확고한 지향점을 공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지만 KB스타즈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통합 6연패를 달성하다 지난 시즌 한템포 쉬어간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이번 시즌에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탈환하는 시즌을 보내려 생각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동된 목표 우승&PO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용인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은 “무조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서 기필코 우승을 해보겠다. 팀 역사상으로도 정상을 차지한 게 너무

가능할 듯 하다. A선수는 “스윗하고 유머스럽다”고 했다. B선수는 “썸(so) 스윗”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가능할 듯 하다. A선수는 “스윗하고 유머스럽다”고 했다. B선수는 “썸(so) 스윗”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가능할 듯 하다. A선수는 “스윗하고 유머스럽다”고 했다. B선수는 “썸(so) 스윗”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변수로 떠오른 대표팀 차출과 부상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스윗맨 이훈재·댄싱머신 정상일·종아리 미남 임근배...

선수들이 뽑은 ‘우리 감독님의 매력’

위성우·안덕수 ‘호통·화통’
유영주 감독엔 ‘잘 생겼다’

WKBL이 10일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WKBL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6개 팀 선수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미디어데이 중간 중간에 소개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한 팀’, ‘이번 시즌 눈여겨봐야 할 선수’ 등 농구적인 요소 외에도 ‘각 팀 선수들이 뽑은 해당 팀 감독의 매력 포인트’에 관한 설문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재치 있고, 솔직한 대답이 쏟아졌다.

부천 KEB하나은행의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이훈재 감독을 표현한 단어 중에 ‘스윗’이 2번이나 나왔다. ‘스윗(sweet)’이라는 표현은 ‘귀엽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듯 하다. A선수는 “스윗하고 유머스럽다”고 했다. B선수는 “썸(so) 스윗”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경기장에서도 열정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목소리가 크기로 정평이 난 야산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과 청주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에게는 ‘호통’, ‘화통’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의 자상함 때문인지 ‘알고 보면 어린 남자’, ‘귀여움’ 등을 선택한 선수들도 있었다.

용인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에게는 “잘 빠진 종아리가 매력”, “꽃미남”이라는 다소 의외의 얘기가 등장한 가운데 부산 BNK 썸 유영주 감독에게도 “잘 생겼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몸매” 등 외모 평가가 덧붙여졌다.

회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향한 선수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밌다’, ‘웃음이 많으시다’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댄싱머신’이었다. 춤 솜씨를 확인한 선수가 있는 듯 했다.

서울 달리기대회 13일 오전 8시 스타트...출발지 세종대로 오전 6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마라톤구간 9시45분까지 통제
로고 새겨진 기능성 티셔츠 제공



또 하나의 명품 달리기대회가 서울의 가을을 뜨겁게 달군다. 13일 오전 8시 서울광장에서 스타트 총성이 울릴 2019 서울달리기대회(서울시·동아일보·스포츠동아 공동 주최)다.

10km와 하프코스로나누어 1만여 명의 달림이들이 출전할 이번 대회는 서울

로고와 청계천, 한강을 달리는 국내 유일의 무대다. 2030 참가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 90세 어르신부터 6세 어린이까지 연령층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 제한은 크게 두지 않는다. 그러나 달리기로 기록을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종목(육상·트라이애슬론·근대5종 등)의 현역 등록선수는 참가 가능해도 시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념품은 일부 바뀌었다. 마라톤 등 러닝 스포츠에 맞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성 티셔츠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사이즈별로 지급된다. 티셔츠에는 ‘2019 SEOUL RACE’ 문구와 대회

로고와 새겨져 있다.

대회 당일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 시내 교통이 탄력적으로 통제된다. 출발지인 세종대로(서울시청 앞~세종대로 사거리)와 도착지인 무교로 구간(시청 삼거리~모전교)이 오전 6시30분부터 10시10분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되며 종로~올곡로~청계천로~동호로~을지로~남대문로~청계천로 등 주요 마라톤 구간은 오전 7시50분부터 9시 45분까지 차례대로 통제된다. 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80여 명이 코스 곳곳에 배치돼 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지원한다.



지난해 열린 서울달리기대회